

둘, 셋으로 갈라진 힘은 큰 힘이 될 수 없습니다만 낙농가의 단합된 힘은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자조금 제도는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되었지만 낙농가들은 자조금이 어느 누구도 아닌 본인을 위함임을 알고 기쁜마음으로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유소비의 둔화는 낙농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우유를 주식으로 하는 낙농선진국에서도 자조금사업 등을 통해 우유소비신장을 이뤄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농축산물 생산자들이 앞다투어 자조금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쌀 자조금마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우리 낙농의 자조금제도는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은 계속 발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위생적

이면서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낙농육우농가들은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낙농육우산업이 단시일 내에 발전을 이룩해 낸 것은 낙농육우 농가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낙농육우농가들을 결집하게 한 협회가 있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결집한 낙농육우가들의 힘이라면 앞으로도 낙농육우 농가 개개인의 권익도 보호될 수 있고 우리의 낙농육우산업은 계속 발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우유와 육우고기를 찾는 한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회와, 월간낙농육우의 기여는 계속 이뤄져야 합니다. 재차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낙농육우농가의 단결과 지혜, 『월간 낙농육우』 통해 모아나가기를...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



푸르른 녹음이 질게 드리우는 신록의 계절 5월, 창취한 여름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는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낙농육우농가들의 일손도 분주함을 더해 갑니다.

먼저, 낙농육우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와 농민

적 시각을 대변하며 정론직필의 외길을 꾸준히 걸어오신 월간 낙농육우의 25주년 맛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언론들이 범하기 쉬운 현실타협적인 모습과 정체로 인한 구

태의연한 자세를 과감히 배척하며, 창간 25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제2의 도약을 다짐하는 월간 낙농육우의 일신우일신하는 모습에서 어느 전문 언론에 못지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월간 낙농육우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 낙농육우분야를 대표하는 월간지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전문 월간지로서 낙농육우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핵심을 집어내려고 노력하는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프로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더욱 개발하여 전문화·정보화·조직화에 주력한다면, 낙농육우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에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월간지로서 더욱

공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농업계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육우분야는 미국의 전략적 제1 수출분야로서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낙농육우농가들의 단결된 힘과 슬기로운 지혜를 본 월간지를 통해 모아 나간다면 줄속적인 한·미FTA를 막아내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서 우리 낙농육우 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12만 농업경영인들도 독자로서, 제보자로서 낙농육우문제와 정부정책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월간 낙농육우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낙농업계를 대표하는 전문지로 남아주길...

양정화
낙농진흥회장



국내 낙농발전과 낙농인의 권익증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월간 낙농육우”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25년간

을 올곧게 낙농을 지켜오면서 우리의 낙농업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훌륭한 역할을 다해주신 한국낙농육우협회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